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진승



최근 지방의 한 대도시에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한 지인으로부터 힘드셨던 경험 두 가지를 전해 들었다.

대부분의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연구비가 많으며, 장래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젊고 의욕 있는 젊은층이 비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음에 비수도권은 인력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인하면서 비수도권의 인재들을 지역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비수도권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그는 갓 설립한 연구기관의 운영에

물두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지방생활에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양한 중앙부서와의 업무 협조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빈번한 출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시간의 낭비와 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과거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규모의 경제보다는 비효율성을 낳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균형발전이란 지역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한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나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을 악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상의 실질적인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의 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면서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전 세계의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대(Glocalization)가 진전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경제 체제 하에서는 지방의 인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적 간섭은 제거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 격차를 이용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방 출신 정치인들에게 의존하려는 지방정부의 행태도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APEC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지역균형발전

용의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중앙 부처 방문 및 설명을 위한 출장은 현재의 국가재정 운영체제 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 즉 수도권으로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발생과 지역의 인재난으로 인한 생산성 높은 산업의 지방 이전 거부,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격차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특정지역의 1인당 총생산량의 차이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1인당 총생산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된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격차가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막대

시설

지역 정치권, 삭감된 국책예산 살려내야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광주와 전남도의 핵심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정치권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광주시가 새 야구장 건설을 위해 요구한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가 될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비 42억 원도 국회에서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전남도 역시 F1 대회 운영비 680억 원 중 30%인 2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에 앞서 정부가 부담키로 했던 경주장 건설비 880억 원 중 352억 원도 서둘러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SOC 예산도 당초 요청했던 1조9559억 원 가운데 3684억 원이 누락돼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1000억 원 미반영)와 여수시 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 확장(236억 원) 등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현안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규모도 큰 만큼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누락된 현안예산 확보는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이 땀 흘려 댄 예산의 실의기간에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 의원들과 공조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교육 희망 보여준 송산분교의 기적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한 시골 분교가 기초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계절 정식 초등학교로 승격되는 기적을 이뤘다고 한다. 전교생이 11명에 불과했던 농촌지역 초미니 분교가 불과 3년 만에 학생 수가 10배가 넘게 늘어나 초등학교 승격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농어촌 교육의 암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순천시 별량초등학교 송산분교는 애초 정식 초등학교였으나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해 지난 2000년 분교로 격하됐다. 2007년에는 학생 수가 11명까지 줄어 폐교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송산분교에 희망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바람이 불면서부터다. 송산분교 교직원 7명은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학교 운영 방침을 자율과 협력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교과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바꿨다고 한다.

기초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계절 학교, 토요 프로젝트 학습, 주제탐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새로 편성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자율수업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수업시간도 1교시를 80분 수업, 30분 휴식으로 과격적으로 변경했다. 학교 운영은 교사·학부모·학생이 공동 결정하는 철저한 참여형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같은 변화의 결실은 학생 수 증가로 나타났다. 2007년 11명이던 학생이 이듬해는 48명으로 급증했고 올 7월 현재 123명으로 늘어 분교에서 다시 정식 초등학교로의 승격을 눈앞에 두게 됐다. 특히 전체 학생의 90%가 순천시내 학생들로, 도시에서 시골로 '교육 귀농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와 주민, 학부모의 열정과 노력이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를 살린 것이다.

농어촌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송산분교의 기적이 모든 학교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자녀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 창세기(8:11)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한 구절이다. 아마도 홍수로 배 위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버텨내던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에서 평화와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신들의 나라 그리스에서도 올리브는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었다. 수도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게 된 것은, 그가 창으로 내리친 바위에서 자라난 올리브 나무 때문이었다. 올리브 열매가 허기를 채워주고 그 기

올리브 전쟁



정착민들이 '올리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두 민족이 경쟁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서 상대 농민을 습격해 불을 지르는 파괴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의 상징마저 전쟁의 대상이 되는 참혹한 현실이 안타깝다.

더욱이 올리브는 수백년간 수확할 수 있는 데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경제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지중해 인근에서 올리브는 없어서는 안 될 생계 수단이다. 요즘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올리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두 민족이 경쟁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서 상대 농민을 습격해 불을 지르는 파괴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의 상징마저 전쟁의 대상이 되는 참혹한 현실이 안타깝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news@

의로 칼럼

반태수



안경이나 렌즈를 벗기 위해 라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각기 다른 수술의 이름이다. 인터넷 검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검색 화면에 나오는 수술방법만 '다비치', '아마리스', '블루', '알레그레토', 'Visx S4' 등 10여가지나 된다. 환자들은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어느 수술이든 각막절편을 만들고 나서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절삭하는 과정을 거쳐지 되는데, 이때 각막절편을 기존의 철제칼로 만드는 지 레이저로 만들어졌는 지에 따라 수술이름이

굴절검사·세극등 현미경검사·각막만곡도검사·각막지형도검사·안저검사·시야검사·각막두께검사·동공크기·CT 검사·눈물검사 등을 꼭 받은 후 안과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가장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사전 검사는 적어도 50여 항목의 검사가 필수적이며, 검사의 수와 종류가 다르지만 사전 검사의 항목이 많을수록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최신 레이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종의 최신 검사장비를 구비해 환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문병

기고

김남용



올해는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기리는 10년 단위 보훈기념일이 유달리 많은 해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시작으로, 한일강제병합 100년, 정선리 대첩 90주년 그리고 6·25전쟁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등은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되새겨야 할 역사적 사실들이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회에서 예우 받아야 할 삶을 사신 분들이며, 이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고, 국민도 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행정이 추

88.4%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의무고용 이행률이 54.1%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더욱이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일부기관에서는 채용사유가 발생하여도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기능직공무원의 저조한 의무채용 이행률이 빈번히 지적되었고, 특히 지난 8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행정기관이 보훈가족 우선채용 솔선을

구하는 비전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훈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예우와 보상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제도'는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우선채용의무는 민간기업의 고용의무보다 더욱 높은 당위성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으며, 예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을 솔선하여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맞게 의무를 다하여야 할 각급 기관에서 채용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할 때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이 행정도는 2010년 9월 말 현재 평균 56.1%로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

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를 고용하기 위해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볼 때, 마땅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무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의무채용률을 채우지 못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보훈청 추천을 거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우선채용 되도록 절차를 준수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 일선에 있는 안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 다칠지 모를 국민에도 솔선하여 국가복합을 통기를 불어 넣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겠다.

<광주지방보훈청 취업지원팀장>

라식수술, 정확한 사전 눈 검사 필수

달라진다는 것이다. 레이저도 여러 회사의 제품에 있어서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는 지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절편을 만든 후 시력교정 과정에서 각막 절삭에 사용하는 레이저 이름에 따라 수술이름이 결정되기도 한다.

단지 사용되는 레이저 기계 혹은 회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라식 수술은 기능과 성능이 가장 좋은 최신의 레이저와 함께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의의 정교하고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만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력교정수술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본인의 눈에 맞는 수술인지 판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수술전 각막 질환·녹내장 유무·수정체·망막 등 눈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의 선택이 필요하다. 한편 라식과 라섹에 사용되는 시력교정용 엑시머 레이저도 기종에 따라 성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엑시머 레이저의 추세는 레이저 빔 조사방식이 flying spot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아마리스, 알레그레토 블루라인 등의 레이저가 있다.

그 중 6차원 안구추적이 가능한 아마리스 라식은 2011년형이 도입돼 가장 최신의 레이저로서 레이저 빔 사이즈가 0.54나노미터로 가장 작아 더욱 정밀하고 섬세한 각막절삭이 가능해 '완벽 기술 제7세대 엑시머 레이저'라 불리고 있다.

작은 레이저빔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막에 불필요한 에너지 전달로 인한 과교정이나 과교정 등의 부작용이 없고, 레이저조사과정에 실시간 잔여 각막두께가 기록되어 더욱 안전하며 시력 개선효과가 우수하다.

<밝은안과21 원장>

아이의 부모 가질 권리 있어... '자발적 비혼모' 급증 문제

'자발적 비혼모'가 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자발적 비혼모란 결혼을 하지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난 자녀가 성장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된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뿐더러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하는 가정은 가부장적 클레라며 배척하고, 아이를 의료윤을 달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비혼모가 키우는 자녀가 반드시 환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편과 함께하는 가정이 속박이라고 느끼는 여성이라면 차라리 입장을 권한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전상길·광주시 서구 화정4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